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영암군, 경기 시흥시에서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2개 품목 2천만원 상당 주문 물품 완판



영암군 미암면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미암면발전협의회(회장 하철운), 판매농가 주민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정왕4동에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자

매결연을 맺고 10년째 이어져온 판매 행사로, 설 명절을 앞두고 미암면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비롯한 건나물, 잡곡, 채소 등 52개 품목 2천만원 상당의 주문 물품을 완판했고, 추가로 7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추가주문 받는 등 농가소득증대

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왕4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명절 때마다 불가상승과 일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가계부담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질 높은 농산물을 동민들에게 안심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농 교류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꼭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송 미암면장은 "경기도 시흥시는 인구 48만명 중 호남인 16만명으로 원주민 4만명 보다 많은 33%를 차지하고 있다"며 "10년간의 이어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형태 개선 및 맞춤형 농산물 가공 판매로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시 공영자전거 '여수랑' 358대 설 연휴 정상운영



대여소 수시 점검 불편 최소화

여수시는 설 연휴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을 위해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정상 운영한다. 시는 연휴 기간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수시 점검하고, 고장 난 자전거는 즉시 수리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수랑'은 1월 현재 대여소 32곳에 358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옛 철길 자전거도로에 5곳의 대여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영자전거 전체 이용실적은 10만 6천여 건에 달한다. 공영자전거는 무인 대여소에서 1일권을 구매하거나 홈페이지(<http://bike.yeosu.gok.kr>)에서 회원가입 후 정기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1일권과 정기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1일권은 한 번 구

매로 최대 4대까지 동시 대여할 수 있다. 요금은 1일 1000원, 1개월 5000원, 6개월 1만8000원, 12개월 3만 원이다. 시는 이번 연휴에는 이용자가 집중될 것을 대비해 거치대를 60%에서 70%로 늘려 배치하며,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옛 철길과 관광지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랑'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라며 "자전거를 소중히 다루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담양군, 설 당일 주요관광지 무료 개방

죽녹원·메타세쿼이아길·소쇄원 등 6개소

담양군은 설 당일인 오는 2월 5일 군 관리 유류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이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출향인, 관광객들에게

담양 관공명소 6개소를 무료로 개방해 보다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료개방 대상 관광지는 담양의 대표 관공명소인 죽녹원, 메타세

쿼이아길, 소쇄원, 한국대나무박물관, 한국가시문학관, 가미골생태공원이다.

군 관계자는 "5일의 긴 연휴를 맞아 담양을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절함 안 내, 편의시설 점검 등 관광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소규모 시설원에 농가 현대화 사업 지원

화순군이 국비 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시설원에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원예 전문단지나 공동 선별·출하·계산 등 공선조직 회원이 아닌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일반 시설원에 농가다.

군은 소규모 시설원에 농가의 하우스 필름과 천장 개폐시설 지원 등 낡은 시설 하우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준비 3억 원을 확보했다. 희망 농업인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화순군 원예 분야 농업발전을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화순군 청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379-3641)으로 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완도군, 축산 보조사업 신청·접수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계획서 등 제출



완도군은 2019년도를 완도자연 그대로 한우 브랜드 원천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정함에 따라 지난 17, 18일 완도읍사무소와 고금면사무소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 축산 보조사업 지침 및 가축 방역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관내 축산 농가, 읍·면 축산 업무 담당자, 축협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완도119안전센터에서는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과 군에서는 가축방역 교육 및 축산 보조사업, 농가 당사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군에서 지원하는 축산 보조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동

물복지향농축산농장 육성 지원,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 조절제 지원, 원소 생산성 향상 지원, 꿀벌 산업 육성 등 25개 사업이다. 군은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에 걸맞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접수 후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해 2월 중 대상자를 통보하게 된다. 이기석 농업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 원천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정에서는 완도자연그대로 한우와 흑염소가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축산 농가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장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망울타리와 전기방울타리 등 설치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사업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

해야 한다. 군은 기존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번기 시작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도록 피해예방 사업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도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진도군은 읍·면 복지 허브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면서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지역 봉사단체와 협력하는 등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제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작년 방문상담 441건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42건을 제공하는 등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김치·전기매트·신풍기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남도사랑봉사단과 국제와이즈맨 진도육주클럽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집수리봉사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원금 405만원을 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안전·건강·고용 등의 생활관련 복지서비스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집배원, 검침원, 복지이장 등 50여명을 명예사회 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통합사례대상자에게 전문기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진 군수는 "민원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로 취약계층 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기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영광도시

장성군